

2017 년 5 월 21 일 “찾아오신 예수님(29) 길과 진리와 생명”(요 14:1-7)

<도입>

13 장 배경: 유대 전통의 유월절 식사 자리에서 제자의 배반을 예고하실 때, 유다는 자리를 떠나고 또 베드로에게 세번 부인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또 33 절, 너희를 떠난다고 하셔서 제자들은 불안해졌습니다.

[1] 마음에 근심있는 제자들에게

1 절.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두려움 때문에 감정이 동요될 필요가 없다는 뜻) 그리고 ‘고별강화’라고 불리는 17 장까지의 길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시며 신뢰를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다루시는 주제가 아버지 집에 관한 것입니다. 물리적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상태를 비유한 것입니다. 따라서 2 절을 의역하면 ‘너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영광이 충만하시지 않느냐? 만일 그런 충만이 없으시다면 이 말을 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나는 너희가 아버지 영광의 충만에 참여할 수 있게 하려고 먼저 가는 것이다’

예수님은 당신이 먼저 아버지의 영광에 들어가고, 또한 제자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후에 그 영광에 들어가게 될 희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가시면 얻게 될 지고한 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만주의 주, 만왕의 왕, 참 구주로서 인정받으신 확고한 자리입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확정된 자리이며 그 자리로부터 다시 오셔서 우리도 그 영광으로 데려 가실 거라는 뜻입니다.

2,3 절을 말씀하시는 전제는 아버지 집으로 떠나는 길은 십자가의 죽음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 길을 당신이 가실 영광의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 십자가가 아니라면

질문: 아버지의 뜻을 십자가를 통해 이루시지 못했더라도 주님은 아버지 영광에 들어가실 수 있었을까?

예수님이 십자가 길을 가지지 않았다면 그분도 아버지의 영광에 들어가실 수 없습니다. 그분은 본래 하나님이신대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심을 포기하셨기 때문입니다.

빌 2:6-7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종의 형체를 가지신 이유는 주인의 뜻에 완벽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함입니다. 자기 뜻대로 산다면 종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택하신 종이 되는 일은 인간이 원래 하나님께 완전하게 순종하도록 지음 받은 인격이 깨어졌으므로 참 순종의 본이 되어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또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순종의 조건이 우리와 똑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뭔가 다르셨겠지?’ 라고 말한다면 구주로서의 자격에서 이탈합니다. 누구든지 인간은 이 땅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영광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와 똑같이 되셔서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과 예수님께서는 숨막히는 모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가 진정 아버지께 순종하는 길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갯세마네에서 그토록 긴장하며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고통이 두려워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마지막 순종의 길임을 확신하신 후엔 기꺼이 지실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6 절을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다.

[3] 그러므로 그분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말씀을 하신 경위는 4 절을 말씀하셨더니 도마가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의 질문에 6 절로 답하신 것입니다.

도마는 예수님 말씀을 곁돌았던 것 같습니다. 영적인 무지 상태에 있었기 때문인데, 누구나 같은 처지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집, 즉 아버지의 영광의 충만을 어떤 눈에 보이는 상태로 상상하는 습관 때문입니다. 영광의 충만을 마치 눈 앞에 펼쳐지는 장관의 아름다움과 기이함에 매료되어 황홀하게 하는 상태를 상상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6 절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영광 안에서 하나님과 인간이 교통하고 나누는 실체는 인격입니다. 어떤 미적이고 신비로운 상태가 아닙니다. 인격의 교통이고 사귄입니다. 아버지 집의 물리적 상태를 말하고자 함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버지와의 풍성하고 친밀한 만남과 사귄입니다. 그래서 영광의 진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결코 누릴 수 없는 **인격의 세계와 교통의 축복의 차원**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이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그분과 영원한 사랑의 언약을 맺었고, 그 언약이 저의 인격에 스미고 확신되어 이 이상 더 좋은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람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격적인 교통입니다. 그래서 그 인격이 자기중심적으로 편협하여 지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맺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신약을 대표할 수 있는 이 말씀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인격적 만남의 축복을 경험하는데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아버지의 집을 향한 희망을 가져오는 축복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눔의 질문>

1. 나에게 6 절의 말씀은 어떤 의미였습니까? 길과 진리와 생명이란 예수님의 인격을 전제하는 말입니다. 그분의 아버지와의 함께 존재하는 방식은 과연 내게 어떤 중요성이 있습니까?
2. '당신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내 생각으로 해석하지 말고, 내용이 무엇인지를 꼼꼼히 생각하며 정리해 보십시오. 매우 큰 말씀입니다.
3. 기독교가 이 말씀으로 인하여 배타적이라는 비판을 받는다면 어떻게 변호하겠습니까? 기독교가 배타적이라는 말과 내가 배타적일 수 있다는 말을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4. 당신은 진정으로 아버지의 집의 영광의 충만에 들어가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무엇을 결단하고 행해야 할까요?